

부처님오신날 특집

새싹불자 설문

“친구에게 포교경험 있다” 7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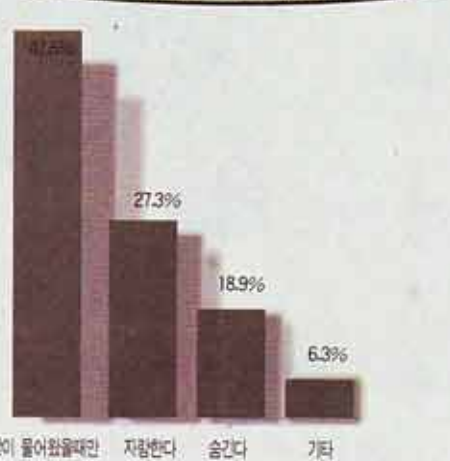
미래불교를 일구길 '새싹불자 키우자' 연중캠페인으로 벌이고 있는 본지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어린이법회 현황과 실태 등 새싹 불자들의 기초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했다. 이 조사에서 어린이 불자들은 대부분 부모의 영향으로 인해 자신의 종교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회에서 가장 지루할 때가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열렬하고 정열 때 리고 응답해 어린이들의 정서에 맞는 정기 법회 프로그램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편집자 주>

본지 어린이법회 회원 564명 대상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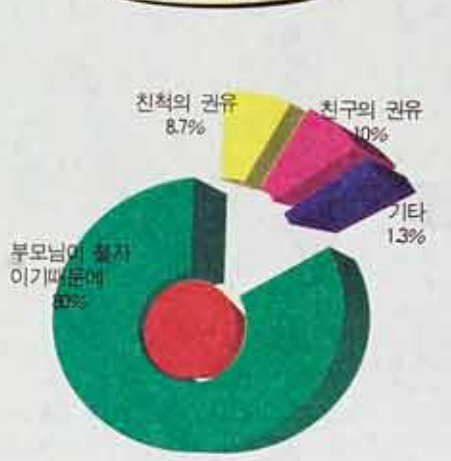
어린이들은 불교입문의 동기가 부모님이 불자이기 때문이 80%를 차지해 어린이 대부분이 부모의 종교에 따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의 권유도 10%에 달했다. 이 결과는 '부모에 이끌려 절에 갔다'는 근세 우리 국민의 실태가 여전한다는 것을 드러냈다. 이는 어린이 포교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포교의 방식보다는 부모를 통한 간접포교에 머물고 있음도 확인됐다. 누구하고 절에 같이 가느냐는 질문에 어머니(34.4%), 형제자매(24%) 친구(22.7%)순으로 나타나 어린이들은 대부분 가족이

나 친구 등이 종교관 정립과 실행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94.4%가 어린이 때서도 자비로운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불자가 될 것이라고 응답해 어린이 불자들이 불교를 자신의 종교로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응답자 가운데 79.5%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친구들에게 절에 같이 가고 싶어서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방법으로는 절에 가면 유익하고 재미있다고 51.6%, 부처님의 가르침이 좋다 11.6%,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있다 10.7%로 순으로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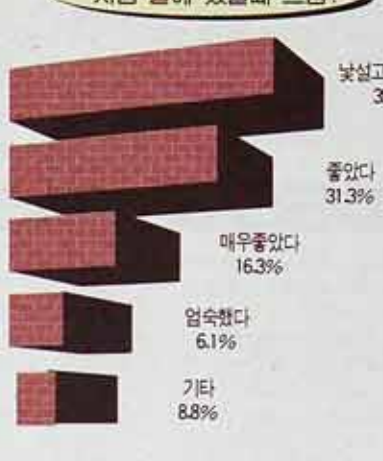
친구들에게 불자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니까?



불교를 믿게된 동기



처음 절에 갔을때 느낌?



“오계를 받았다” 48.2%... ‘나는 불자’ 27%만 자랑 즐겨부르는 찬불가 ‘찬양합니다’ ‘산회가’ ‘청법가’ 존경하는 스님 ‘원효스님 29.3%’ ‘사명대사 20.7%’ ‘성철스님 19.3%’

정기법회때 가장 지루하고 싫은 시간은?



이밖에도 26.1%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우리절은 공기 좋고 스님도 반갑게 대해준다, 부처님께서 인자하게 웃으시며 반긴다, 예수님은 땅을 만들었지만 부처님은 우주를 만드셨다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친구들을 절에 가자고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그동안 어린이들을 위한 포교활동이 개신교나 천주교에 비해 뒤늦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어린이 불자들이 자신의 종교관에 확신을 갖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불교미래의 전망을 밝게하고 있다. 반면 처음 절에 갔을때 느낌을 묻는 질문에는 39.4%가 낯설고 무

서웠다고 가장 많았다. 좋았다 31.3%, 매우좋았다 16.3%, 엄숙했다 6.1%, 기타 8.8%순으로 응답했다. 또 절에 다니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느냐는 질문에는 남이 물어왔을 때만(47.6%), 자랑한다(27.3%), 싫는다(18.9%) 무응답(6.3%)순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자랑하지 않는 이유는 친구들 가운데 불교를 믿는 친구가 많지 않아서(33.3%), 속스러워서(21.7%), 친구들이 무시하고 놀리기때문에(18.8%)로 응답해 아직까지 새싹불자들이 타종교인에 비해 자신이 불자임을 자랑스럽게 또는 멋지게 밝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설문응답자를 특성별로 분류하면 남학생(54.7%)이 여학생(45.3%)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성인불교신자의 경우 남녀의 비율이 약 6:1인 것에 비해 연령층이 젊어질수록 여대남소(女大男小)의 비율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학년별로는 초등학교 1-2학년이 21.3%, 3-4학년이 44%, 5-6학년이 34.7%로 나타나 학년별로는 큰 편차없이 고르게 정기법회에 참석, 실행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설문조사결과 어린이들이 불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어린이법회진행에 있어 아직까지 의식위주와 성인 불자의 실행활동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법회활동이 재미없었다고 느꼈던 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2.2%가 프로그램 자체가 흥미가 없어서라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또 법회에서 가장 지루하고 재미 없는 것을 묻는 질문에 열렬할 때 33.8%, 절(108배)할 때 26.2%, 법문이 길어질때 16% 등의 순으로 나타나 어린이 포교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이 시급하다는 교계의 지적이 다시한번 검증됐다.

반면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정기법회에 이어 2부법회로 진행되는 레크리에이션시간(44.8%)과 법사 스님의 재미 있는 설법(32.4%)으로 나타나 어린이들은 딱딱한 분위기의 법회 진행보다는 다소 화기애애한 법회진행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문의 경우 싫어하는 시간이면서 또한 가장 좋아하는 내용으로 삼반되게 나타났다. 이는 법문에 대한 어린이들의 선호도는 높으나 방법적인 면에 있어 교리주입 위주의 설법이 장기간 진행돼 아이들의 정서와는 결맞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재미있고 교훈적인 불교설화나 유머러스한 설법이 첨가된다면 아이들에게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설법에 대한 호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즐겨부르는 찬불가로는 찬양합니다(21%), 산회가(11.8%)를 비롯 청법가, 삼귀의 등으로 나타난 것은 법회운영이 의식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통용처럼 쉽게 부를 수

봄

불기 2540년 부처님 오신날

축

Grid of 20 boxes for Buddhist services including Man Deok Sa, Gyeongseung Sil, Beopjang Sa, Gwanamjeong Sa, Beopung Sa, Dorip Sa, Dongsan Banayehui, Gwanum Sa, Hyochung Sa, Inghwaseonwon, Hockukgakwonsa, Hwabangsa, Yaksa Pokgyowon Jeongbeodaehak, Sambosha, Inghwaseonwon Inhasa, Muhak Sa, Suok Sa, Donghae Sa, Jeonggaks Sa, and Yaksa Sa. Each box lists the service name, location, and contact information.